

##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유사성\*

이 만 기  
단독/서울대학교

Lee, Man-Ki(2004), *Algunas similitudes sintácticas entre el español y el coreano. Revista Iberoamericana, 15, 147-169.*

Desde el punto de vista tipológico, es bien claro que el español, lengua románica, y el coreano, lengua de la familia ural-altaica, son lenguas evidentemente distintas. De modo que no es una tarea fácil que en dichas lenguas podamos encontrar aspectos parecidos en el campo fonológico, morfológico y sintáctico. En contraste, el español y el inglés pertenecen a la familia de lenguas indoeuropeas, por lo cual muchas palabras derivadas del latín en español y en inglés son morfológicamente muy similares. Por lo tanto, muchos estudiantes coreanos, quienes ya saben inglés y empiezan a aprender español como lengua secundaria, tienen tendencia a adquirir los aspectos lingüísticos del español con la base del inglés. Pero, en este trabajo procuramos mostrar que el español y el coreano comparten rasgos comunes en algunos aspectos sintácticos. En concreto, intentamos argumentar que estas dos lenguas muestran las similitudes sintácticas en los siguientes temas: el fenómeno de sujeto nulo, el orden de palabras de estructura informativa, y la preposición personal 'a' como una marca de Caso. En primer lugar, el español y el coreano son lenguas de sujeto nulo. En español, el morfema flexivo del verbo puede identificar el sujeto nulo. En cambio, el coreano, que no tiene conjugación verbal, legitima el *pro*-drop mediante la situación discursiva. En estas dos lenguas, el sujeto nulo es obligatorio cuando está licenciado y completamente recuperable. En segundo lugar, el español y el coreano muestran una similitud sintáctica en que el orden de palabras, aunque es distinto uno del otro por la posición paramétrica del núcleo, varía dependiendo de la estructura informativa del discurso. Es decir, señalaremos que estas dos lenguas no son lenguas con sujeto obligatorio como el inglés y el francés: en español y en coreano no aparecen un expletivo léxico como 'it' o 'there' del inglés y 'il' del francés. Por

---

\* 본 논문은 2004년 2월 6일 한국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Agreement in Spanish)와 2004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상세한 지적과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논문 심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último, procuramos argumentar que la preposición 'a' del español tiene una función muy parecida a la marca de Caso acusativo 'ul/lul' del coreano en los siguientes aspectos. Primero, estas dos partículas se utilizan para evitar la ambigüedad de sujeto y objeto. Segundo, hacen que el objeto directo pueda llevar un rasgo semántico y aspectual de 'especificidad' y de 'telicidad'. Tercero, tienden a aparecer delante del objeto directo con predicado secundario. Con todo esto, pensamos que, en los aspectos sintácticos, el coreano es una lengua más cercana al español que al inglés. Si aplicamos a la enseñanza del español estas similitudes sintácticas entre las dos lenguas, los estudiantes coreanos tendrán un acceso más fácil a la adquisición del español.

**Key Words:** Similitudes sintácticas/ Lenguas de sujeto nulo/ Estructura informativa, 통사적 유사성/ 영주어 언어/ 정보구조

## I. 서론

일반적으로 언어 유형론적 입장에서 로망스어의 하나인 스페인어는 우랄알타이어계인 한국어와는 분명히 서로 다른 언어임에 틀림이 없다.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적 여러 양상에서 이들 두 언어는 공통된 언어학적 현상을 찾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많은 학생들은 외국어로 이미 습득한 영어에서 출발하여 스페인어의 여러 언어학적 특징들을 유추해 내려하는 경향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라틴어에서 파생된 많은 영어 어휘들은 스페인어 어휘와 유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페인어에 좀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통사론적 측면에서 스페인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와 훨씬 더 유사한 현상을 공유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스페인어가 습득하기 까다로운 외국어가 아니라,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과도 친숙한 언어라는 사실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면,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한국어 화자 학생들이 스페인어에 좀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이 외국어 교수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지는 않지만, 두 언어 간의 통사론적 유사성을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의

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수법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두 언어간의 통사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가지고 논증해 나갈 것이다: 주어생략 현상, 정보구조 어순, 스페인어 인칭목적격 전치사 ‘a’와 한국어 목적격 조사 ‘을/를’의 유사성. 마지막으로 결론이 제시 될 것이다.

## II.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분명히 계통상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며 로망스어의 하나인 스페인어는 여러 가지 언어학적 양상에서 한국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언어임에 틀림없다. 어휘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어의 어휘와 스페인어의 단어는 어떠한 상호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sup>1)</sup> 또한 음성학적 측면에서도 두 언어간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음소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어에 존재하는 /ㅁ-/ /ㅍ/, /ㅌ-/ /ㅍ/, /ㄱ-/ /ㅋ/와 같은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대조가 스페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국어에는 /b/와 /p/(모두 대표음 /ㅍ/)가 대조되지 않고, 단순히 무성음 ㅍ(p)/된소리 ㅁ(p')/거센소리 ㅍ(p<sup>h</sup>)의 대립 쌍만이 존재한다. 한편,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r/, /ñ/, /f/, /rr/, /x/, /θ/와 같은 음소는 한국어에 없다. 형태론적 측면에서도 두 언어간의 공통점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형태론적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우리말에는 ‘café’, ‘cafetería’, ‘plaza’, ‘pan’, ‘guerrilla’와 같은 스페인어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스페인어에서 차용(préstamo)되어 음성적 변화를 겪은 단어도 있다. 예를 들면, tabaco는 조선시대에 건너와 다음과 같은 음성변화를 겪어 현재 ‘담배’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바꼬 > 담바고 > 담배

## 1. 형태론적 문법자질의 차이

자연언어는 일반적으로 의미의 최소단위인 형태소(morfema)들의 결합에 의해 단어를 형성한다. 형태소에는 단어의 기본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형태소(morfema léxico) 뿐만 아니라,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소(morfema gramatical)도 존재한다. 문제는 언어마다 문법적 형태를 나타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만약, 자연언어 모두가 비록 어휘는 서로 다르지만 문법적 양상을 나타내는 형태자질이 서로 일치했다면, 아마 외국어를 습득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을 것이다.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문법자질의 표현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명사에 존재하는 성(género)과 수(número)나 동사의 인칭변화(conjugación)와 같은 굴절형태소(morfema flexivo)가 한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스페인어의 접어 대명사가 동사에 항상 붙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에는 이러한 종류의 접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한국어에 존재하는 형태론적 격표지는 스페인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가지 현상들 중에서 먼저, 스페인어 명사와 술어사이에 존재하는 일치현상(concordancia)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1) 성/수 일치현상

스페인어에는 명사와 이를 서술해주거나 수식해주는 요소가 그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한국어에는 이러한 명사와 술어간의 일치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   |                             |
|---|-----------------------------|
| (1) a. <b>Él</b> es alto.                     | 그는 키가 <u>크다</u> .           |
| b. <b>Ellas</b> son altas.                    | 그녀들은 키가 <u>크다</u> .         |
| (2) a. <b>Esa chica</b> parece bonita.        | 저 여자는 <u>예뻐</u> 보인다.        |
| b. <b>Esas chicas</b> parecen bonitas.        | 저 여자들은 <u>예뻐</u> 보인다.       |
| (3) a. Considero inteligente <b>al niño</b> . | 나는 그 아이를 <u>똑똑하다고</u> 생각한다. |

b. Considero inteligentes a los niños.

나는 그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4) a. Juan bebe frío el café. 후안은 커피를 차게 마신다.<sup>2)</sup>

b. Juan come cruda la carne. 후안은 고기를 날로 먹는다.

(5) a. El chico majo 멋진 소년

b. Las chicas majas 멋진 소녀들

(6) a. Las chicas fueron consideradas inteligentes.

저 소녀들은 똑똑하다고 여겨졌다.

b. Fueron consideradas inteligentes las chicas.

저 소녀들이 똑똑하다고 여겨졌다.

이는 한국어의 굴절형태소에는 스페인어와 같은 일치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앞서 언급했다시피, 언어내적 요소인 문법자질을 나타내는 문법형태소는 개별언어간에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언어계가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망스 어족에 속하는 불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와 같은 언어는 이러한 일치현상을 모두 보이기 때문이다.

(2) 접어(clítico) 대명사의 사용

한편, 다음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는 접어를 통하여 직접목적대명사나 간접목적대명사의 기능을 표시하나, 한국어에는 대명사의 이러한 기능들이 접어와 같은 문법요소에 의해 표현되지 않는다.

(7) a. Juan **la** quiere mucho.

철수는 그녀를 무척 사랑한다.

b. Juan **le** compró un juego de perla (a María).

철수는 그녀에게 진주 한 세트를 사주었다.

2) 이와 같이 목적어 명사구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술어를 이차술어(predicado secundario)라고 부른다. 한국어에서도 형용사가 어미활용(굴절)을 통하여 이차술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접어는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동사에 항상 붙어서 나타나야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대명사가 자유 형태소(morfema libre)인 것과는 달리 결속 형태소(morfema ligado)이다. 이러한 접어 형태소 역시 로망스어에만 나타나는 문법형태이다.

### (3) 형태론적 격 표지

앞의 두 문법현상이 스페인어에만 존재하는 문법형태였다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주제어 표시(Topic marker) 같은 형태론적 격표지는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문법형태소이다. 즉, 다음의 문장에서 보듯이, 한국어에는 격조사나 주제어 표시가 명사구에 외현적으로 표시되지만, 스페인어는 이러한 형태론적 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sup>3)</sup>

- (8) a. 철수가 서점에서 책 몇 권을 샀다. [주격, 목적격조사]  
Juan compró unos libros en la librería.  
 b. 어제는 서울에 비가 억수같이 왔다. [Topic marker]  
Ayer llovió a cántaros en Seúl.

지금까지 우리는 스페인어와 한국어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형태론적

3) 생성문법이론에서는 보편문법적 관점에서, 형태격(Caso morfológico)이 격표지로 나타나는 언어에서 출발하여, 모든 자연언어에는 추상격(Caso abstracto)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격이란 어떤 명사구의 문장에서의 통사적 기능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태격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간에, 명사구 스스로 단독적으로 격표시가 허가될 수는 없다. 즉, 다음과 같이 명사구들은 문장 속에서 자신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i) a. \*철수가, \*영희를  
 b. 철수가 영희를 사랑해.  
 (ii) a. \*las madres, \*sus niños  
 b. Las madres quieren a sus niños.

이런 점에서 언어간에 존재하는 형태론적 문법자질의 차이점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법현상 외현적 차이점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해 내느냐는 것일 것이다.

문법자질이 존재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두 언어에 나타나는 이러한 서로 다른 체계의 문법형태소는 외국어로서 각각의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장애로 나타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 2. 어순의 차이: 개별언어간의 매개변인(Parámetro)

본 논문에서의 주제는 스페인어와 한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통사론적 유사성이다. 이러한 주제의 기저에는 언어생득설의 가설(Hipótesis innatista) 하에서 인간은 보편문법(Gramática universal)을 지닌다는 근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사론적 유사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두 언어에 존재하는 분명한 통사론적 차이점, 즉 문장 어순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생성문법이론에서는, 보편문법적 관점에서 개별언어의 구체적인 통사론적 차이점은 매개변인(Parámetro)에 의해 설명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매개변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언어는 핵이 앞에 오는 Head-initial 언어와 핵이 뒤에 위치하는 Head-final 언어로 나누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9) Head-initial language: 스페인어, 영어

XP	
/	\
X(어휘핵)	Complement(보충어)
destrucción(N)	de la ciudad
destruir(V)	la ciudad
contento(Adj)	de las notas
en(P)	la escuela
creer que(COMP)	[María es guapa]

(10) Head-final language: 한국어, 일본어

XP	
/	\
Complement	X(어휘핵)
도시의	파괴(N)
도시를	파괴하다(V)
영회를	좋아하다(Adj)
학교	에서(P)
[영회가 예쁘다]	고(COMP) 생각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핵이 앞에 오는 언어인 반면에, 한국어는 일본어와 같이 핵이 뒤에 오는 언어에 속한다. 이러한 매개변인을 통하여,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어순차이가 두 언어에만 존재하는 통사론적 차이가 아니라, 모든 자연언어에 적용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페인어와 한국어에 존재하는 어순차이는 매개변인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는 문법현상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다음 장에서 살펴볼 두 언어간의 통사적 유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스페인어는 비록 어순에 있어서는 인도유럽어족인 영어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한국어와의 통사적 유사성을 고려해 본다면 스페인어는 한국어에 더 가까운 언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III.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 1. 주어생략(*pro-drop*) 현상

##### (1) 영주어 언어와 비영주어 언어

먼저,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영주어 언어(*null subject language*)이다.



## (11) 영주어 언어의 인칭별 동사변화

스페인어	한국어
(Yo) <b>canto.</b>	(나는) 노래부른다.
(Tú) <b>cantas.</b>	(너는) 노래부른다.
(El/Ella) <b>canta.</b>	(그/그녀는) 노래부른다.
(Nosotros) <b>cantamos.</b>	(우리는) 노래부른다.
(Vosotros) <b>cantáis.</b>	(너희들은) 노래부른다.
(Ellos/Ellas) <b>cantan.</b>	(그들/그녀들은) 노래부른다.

위에서 보듯이, 스페인어는 동사의 활용어미, 즉, 굴절형태소를 통하여 주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는 인칭별 동사의 활용어미가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에 논의하겠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활용어미 형태소가 아니라 담화 문맥에서 주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영주어가 허가된다. 이러한 동사 활용어미와 영주어 허가의 상관관계를 포착하여, Jaeggli & Safir(1989)는 획일적인 굴절 패러다임을 지닌 언어는 영주어를 허가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2) Jaeggli & Safir (1989): 획일적인 굴절 패러다임을 지닌 언어는 영주어를 허가한다.

한편, 동사의 굴절형태소가 있음에도 주어를 생략할 수 없는 언어도 있다. 다음에서 보듯이, 불어와 영어가 비영주어 언어의 예가 될 수 있겠다.

## (13) 비영주어 언어의 인칭별 동사변화

불어	영어
* <b>(Je) chante.</b>	* <b>(I) sing.</b>
* <b>(Tu) chantes.</b>	* <b>(You) sing.</b>
* <b>(Il/Elle) chante.</b>	* <b>(He/She) sings.</b>
* <b>(Nous) chantons.</b>	* <b>(We) sing.</b>
* <b>(Vous) chantez.</b>	* <b>(You) sing.</b>
* <b>(Ils/Elles) chantent.</b>	* <b>(They) sing.</b>

불어는 스페인어와 같은 로망스어에 속하지만, 로망스어군에서 유일하게 영주어를 허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른 로망스어와는 달리, 불어의 경우, 동사의 풍부한 어미형태에도 불구하고, 발음(구어) 시에 동사의 어미형태가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복수의 주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4)</sup> 영어의 경우에는 동사의 굴절형태소의 출현이 3인칭 단수의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주어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 (2)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주어생략 현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어는 동사의 ‘풍부한’ 일치형태소 (richness of agreement morphology)로 탈락된 주어의 회복이 가능하다. 즉, (14a)에서 보듯이, 주어를 생략해도 어미형태소 ‘o’가 주어 ‘Yo’를 확인해주므로 ‘Yo’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사에 주어와 일치하는 일치형태소가 나타나지 않아 주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국어의 경우, (14b)와 같이 담화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주어가 생략되어 나타나면 그 회복이 불가능하여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 (14) a. [e] Canto.           [스페인어]  
       b. \*[e] 노래한다.       [한국어]

따라서, 한국어는 담화나 문장 차원에서 탈락한 주어를 복원할 수 있는 요소(선행사)가 제시된 환경에서만 주어생략이 가능하다.

- (15) a. 넌 밥 먹었니?           - 응, [e] 먹었어.  
       b. 철수는 언제 오니?       - [e] 일요일에 와.  
       c. 인수는 [[e] 내일 오겠다고] 말했다.  
       d. 철수는 학생이야. [e] 언어학을 공부하지.

4) 불어의 경우, 2인칭 복수 인칭변화 ‘Vous chantez’에서는 동사의 어미형태의 발음이 다른 인칭과는 분명히 구별되므로 주어인 ‘Vous’가 생략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로망스어에서 영주어의 허가가 구어(lenguaje oral)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한국어에는 일치형태소가 동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의 복원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한국어의 이러한 주어생략 현상을 아주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영화에서 주된 흥미 거리로 제시되고 있는 백광호의 진술내용이 그것이다. 형사들은 백광호의 진술에서 그가 범인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백광호는 자신이 숨어서 본 범행현장을 형사들 앞에서 진술하는 것뿐이다. 즉, 다음 백광호의 진술내용에 나타난 생략된 주어는 담화상 1인칭인 [내가]도 될 수 있고, 3인칭인 [범인이]도 될 수 있는 것이다.

(16) [e] 향숙이 머리에 썬다. [e] 목을 조른다.

스페인어도 3인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문에서는 주어 생략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3인칭의 특성상 단문에서는 생략된 주어의 지시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다음의 문장은 담화적 차원에서 맥락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문장이 된다.

(17) a. [e] Estudia lingüística.  
b. [e] Vendrá el domingo.

즉, 스페인어에서도 3인칭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담화나 문장 차원에서 선행사가 있어야 주어생략이 가능하다.

(18) a. Juan es estudiante.                    [e] Estudia lingüística.  
b. ¿Cuándo vendrá Juan?                    [e] Vendrá el domingo.

그러나 비영주어 언어인 영어나 불어에서는 담화문맥상 주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어를 생략하면 다음과 같이 비문이 된다.

(19) a. John is a student.                    \*(He) studies linguistics.  
b. When will John come?                    \*(He) will come on sunday.

(3) 주어생략과 인칭대명사

한편, 스페인어나 한국어처럼 주어생략이 허가되는 언어에서는, 주어 탈락이 가능한 환경에서 인칭 주격대명사를 사용하면 강조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다음과 같이 주어를 회복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무표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 (20) a. ¿Vas a cantar?  
 b. Sí, [e] voy a cantar.  
 b'. Sí, **yo** voy a cantar. [+강조]
- (21) a. 너 노래할래?  
 b. 응, [e] 노래할게.  
 b'. 응, **내가** 노래할게. [+강조]

마찬가지로, 다음의 예문들은 주어생략과 관련하여 스페인어나 한국어의 공통점을 시사한다. 즉, 두 언어 모두 주어를 생략하면 문장내의 선행사를 지칭할 수 있으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면 문장 내의 선행사가 아닌 다른 지시체를 가리킨다.

- (22) a. Cuando [e]<sub>i</sub> trabaja, Juan<sub>i</sub> no bebe.  
 b. Cuando él<sub>i/j</sub> trabaja, Juan<sub>i</sub> no bebe.
- (23) a. [e]<sub>i</sub> 일할 때, 철수<sub>i</sub> 술 안 마셔요.  
 b. 그가<sub>i/j</sub> 일할 때, 철수<sub>i</sub> 술 안 마셔요.
- (24) a. Juan<sub>i</sub> quiere [[e]<sub>i</sub> casarse con María]  
 b. Juan<sub>i</sub> quiere [que él<sub>i/j</sub> se case con María]
- (25) a. 철수<sub>i</sub> [[e]<sub>i</sub> 마리아와 결혼하길] 바란다.  
 b. 철수<sub>i</sub> [그가<sub>i/j</sub> 마리아와 결혼하길] 바란다.

예상한 바대로, 영주어 언어가 아닌 영어의 경우에는, 스페인어나 한국어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주격인칭대명사가 문장 내의 선행사나 그 이외의 다른 지시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

(26) When he<sub>i</sub> works, John<sub>i</sub> doesn't drink.

이상에서, 우리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비록 동사활용이라는 굴절형태소 체계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영주어언어라는 점과 주어생략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통사적 현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두 언어는 아주 멀리 동떨어진 언어가 아니라 통사적으로 밀접한 언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 2. 정보구조 어순

### (1) SVO 어순과 정보구조 어순

주어생략현상에 이어서, 여기에서는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공히 정보구조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다음에서 보듯이, 영어와 불어는 주어가 정해진 위치에 나타나는 고정된 SVO 어순을 보인다.

(27) 영어와 불어의 SVO 어순

영어	불어
a. Who came?	a. Qui est venu?
b. <b>John</b> came. (SV)	b. <b>Jean</b> est venu. (SV)
a. Who bought the computer?	a. Qui a acheté cet ordinateur?
b. <b>Mary</b> bought it. (SVO)	b. <b>Marie</b> l'a acheté. (SVO)

그러나 다음 스페인어의 예문에서 보듯이, 스페인어 어순은 SVO의 고정된 어순이 아니라 정보구조에 민감한 어순을 나타낸다.

(28) 스페인어의 정보구조 어순

스페인어	
a. ¿Quién vino?	
b. Vino <b>Juan</b> .	(VS)
a. ¿Quién compró el ordenador?	
b. Lo compró <b>María</b> .	(OVS)

즉, 스페인어의 어순은 고정된 SVO 어순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에 따라 주어의 위치가 문장의 끝에도 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어순은 ‘구정보(Tema)+신정보(Rema)’의 어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어도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구조와 관련된 어순을 보이고 있다. 같은 대화 상황에서 두 언어의 어순을 비교해보자.

(29)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어순비교

스페인어	한국어
a. ¿Quién compró el ordenador?	a. 그 컴퓨터 누가 샀니?
b. El ordenador lo compró <b>María</b> .	b. 그 컴퓨터는 영희가 샀어.
a. ¿Qué compró María?	a. 영희는 뭘 샀니?
b. María compró <b>un ordenador</b> .	b. 영희는 컴퓨터를 샀어.

위의 표에서 보듯이, 스페인어나 한국어 모두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내용(진한 글자로 된 단어)은 동사에 가깝게 나타나며,<sup>5)</sup> 담화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물론 두 언

5) 스페인어는 신정보가 동사 바로 뒤에 위치(동사+신정보)하며, 한국어는 동사 바로 앞에 위치(신정보+동사)하는 것이 자연스런 무표적 어순(unmarked word order)이다. 동사와 관련하여 신정보의 어순이 서로 다른 것은 매개변인에 의해 나누어지는 핵의 위치(head initial/ head final)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동사가 핵이 되므로, Head-initial 언어인 스페인어는 신정보가 동사 뒤에 올 것이며, Head-final 언어인 한국어는 신정보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다.

어모두 구정보가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순이다). 따라서 영어처럼 주어의 위치가 고정된 SVO 어순이 아니라, 담화정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어순이 배열된다는 점에서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공통된 분모를 지니는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주어의 의무성과 어휘허사(lexical expletive)

한편,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어휘허사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즉, 다음 도표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영어나 불어와 같이 주어 위치가 고정된 SVO 어순을 지니는 비영주어 언어에서는 항상 주어 위치에 영어의 'it', 'there'이나 불어의 'il'과 같은 어휘허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영주어 언어인 스페인어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어휘허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30) 영주어 언어와 비영주어 언어의 어휘허사 분포

비영주어 언어	영주어 언어
영어	스페인어
<b>It's</b> 10 o'clock.	[e] Son las 10.
<b>It</b> is likely that they won't pay you.	[e] Es fácil que no te paguen.
<b>It</b> seems that Mary is intelligent.	[e] Parece que María es inteligente.
<b>There</b> is a flower on the table.	[e] Hay una flor sobre la mesa.
불어	한국어
<b>Il</b> est dix heures.	[e] 10시야.
<b>Il</b> est probable qu'ils ne te paient pas.	[e] 개들이 너한테 돈 안 주기 쉬워.
<b>Il</b> semble que Marie est intelligente.	[e] 영희가 똑똑한 것 같아.
<b>Il</b> y a une fleur sur la table.	[e] 책상위에 꽃 한 송이가 있어.

영어나 불어와 같은 비영주어 언어에서 어휘허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 언어가 주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SVO의 고정된 어순을 요구하는 언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sup>6)</sup>

### 3. 스페인어 전치사 ‘a+직접목적어’와 한국어 목적격조사 ‘을/를’의 유사성

스페인어 인칭전치사 ‘a’는 직접목적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이러한 인칭이라는 의미자질 조건을 요구하진 않는다.

- (31) a. He visto a María.                    [+animado]  
       b. \*He traido a una maleta.        [-animado]  
 (32) a. 나는 영희를 봤어.                    [+animado]  
       b. 나는 가방을 가져왔어.            [-animado]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의 인칭전치사 ‘a’와 한국어 목적격조사 ‘을/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두 언어 공히 이들 요소는 주어와 목적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음의 스페인어 예문에서 보듯이, 직접목적어 앞에 인칭전치사 ‘a’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 (33) a. Juan quiere María.                    (ambiguo)  
       b. Persegúa el guardia el ladrón.        (ambiguo)

그러나 인칭전치사 ‘a’를 목적어 명사구 앞에 삽입하면 이러한 중의성은 사라지게 된다.

- (34) a. Juan quiere **a María**.                    (no ambiguo)  
       b. **A Juan** quiere María.                (no ambiguo)<sup>7)</sup>

6) Chomsky (1982)는 주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를 제안한 바 있다.

(i) 확대투사원리: 모든 절은 주어를 갖는다. (Every clause must have a subject).



- (35) a. Persegua **al guardia** el ladrón. (no ambiguo)  
 b. Persegua el guardia **al ladrón**. (no ambiguo)

다음의 스페인어 예문은 주어와 목적어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사물 목적어에도 ‘a’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36) Venció **a la dificultad** el entusiasmo. [-animado]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격조사는 주어와 목적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37) 철수 영희 좋아해. (ambiguo)<sup>8)</sup>  
 (38) a. 철수가 영희를 좋아해. (no ambiguo)  
 b. 철수를 영희가 좋아해.

그러나 한국어나 스페인어 모두 주어와 목적어가 애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조사나 인칭전치사 ‘a’가 나타나지 않는다.<sup>9)</sup>

7) 이 문장은 ‘A Juan’이 강조된 강조구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접어대 명사가 나타나야한다: A Juan lo quiere María.  
 8) 익명의 논평자가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이 문장에 대해 한국어 화자는 SOV로 해석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경향일 뿐이며, 이 문장이 항상 SOV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철수 영희 서로 좋아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며, OSV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국어에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애매성인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문장해석의 중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격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격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논평자도 지적하듯이, 다음과 같이 목적격조사는 생략가능하며 주격조사만으로도 문장의 애매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철수가(는) 영희 좋아해.  
 9) 논평자는 다음의 점을 들어 한국어 목적격조사는 스페인어 대격전치사 ‘a’와는 다른 문법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한국어 목적격조사는 스페인어와 달리 무생물 목적어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어 목적격조사는 목적어 기능 표시자임과 동시에 초점과 관련된 화용론적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이 주어와 목적어가 애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조사가 나타나는 문장을 지적하고 있다: “철수가 책을 샀니?” 물론 이러한 점들은 스페인어 대격전치사 ‘a’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논의되는 특정성과 완료성과 같은 의미적 양상에서 한국어의 목적격조사와 스페인어의 대격전치사는 유사한 기능을

- (39) 철수 책 샀니? (no ambiguo)  
 (40) ¿Juan compró libros? (no ambiguo)

둘째, 격조사 ‘을/를’이나 인칭전치사 ‘a’는 해당 목적어가 특정성 (specificity)이란 의미자질을 나타내도록 한다.

- (41) a. Trajeron [**a un amigo**] con ellos. [+específico]  
 b. Trajeron [**un amigo**] con ellos. [-específico]  
 (42) a. 영희가 [어떤 학생-을] 보았다. [특정한 한생]  
 (Kim, 1993: 23)  
 b. 나는 존이 [어떤 아이] 야단치는 거 보고 놀랐다.  
 [불특정한 아이]  
 (Lee & Cho, 2003: 43)

셋째, 목적격조사나 인칭전치사 ‘a’와 함께 나타난 목적어는 특징적인 의미해석을 지님으로 인하여, 해당 술어가 상적 요소(aspectual factor)인 완료성(telicity)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인칭전치사 ‘a’와 목적격조사가 사용된 구문에서만 완료적 해석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문장에서는 두 언어 모두에서 불완료상을 나타내는 반복적 해석을 가진다.

- (43) a. Laura escondió **a un prisionero** durante dos años.  
 [single act reading]  
 b. Laura escondió **un prisionero** durante dos años.  
 [repetitive reading]  
 (Torrego, 1998: 21)  
 (44) a. 한시간 동안 존이 편지를 썼다. [single act reading]  
 b. 한시간 동안 존이 편지 썼다. [repetitive reading]  
 (Lee & Cho, 2003: 44)

---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목적격조사와 인칭전치사 ‘a’는 술어의 완료적 해석과 어울리는 ‘한 시간 안에’나 ‘en un segundo’와 같은 부사구와만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45) a. 한 시간 안에 존이 편지를 썼다. [single act reading]  
 b. ??한 시간 안에 존이 편지 썼다. [repetitive reading]  
 (Lee & Cho, 2003: 45)
- (46) a. Besaron **a un niño** en un segundo. (téllico [+terminativo])  
 b. \*Besaron **un niño** en un segundo.  
 (Torrego, 1999: 1789)

넷째, 스페인어의 인칭전치사 ‘a’와 한국어의 목적격조사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 공통점을 나타낸다: 이차술어(predicado secundario)의 목적어 명사구 앞에 온다. 먼저, 다음의 예문들은 스페인어의 인칭전치사 ‘a’가 이차술어를 가지는 목적어 명사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 (47) Besaron [**a un niño** llorando].<sup>10)</sup>  
 (48) a. Llamamos [**al perro** Juan].  
 b. Llamamos [perro **a Juan**]  
 (49) Encontré [**a un alumno** preocupado por el examen].  
 (50) La UEFA podría dejar [**a Inglaterra** sin Eurocopa].  
 (51) Hicieron [**al pobre animal** correr].  
 (52) Tiene [**a muchos alumnos** estudiando el problema].<sup>11)</sup>

10) ‘a’가 나타나지 않는 다음의 문장은 ‘llorando’가 주어술어로만 기능한다:

(i) Besaron [un niño] llorando.

11) 스페인어 ‘tener’ 동사구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haber 존재구문과 유사하다. 먼저 특정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히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를 보인다.

(i) a. Hay niños en el jardín.  
 b. \*Hay el niño en el jardín.  
 (ii) a. María tiene parientes.  
 b. \*María tiene los parientes.

둘째, 두 동사 모두 직접목적어로 [+animado] 의미자질을 지니는 명사구를 취하더라도

다음의 한국어 예문 역시, 목적격조사가 이차술어를 가지는 목적어 명사구 앞에 반드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sup>12)</sup>

- (53) a. 철수는 [영희를 뛰게] 했다.  
b. ?\*철수는 [영희 뛰게] 했다.
- (54) a. 철수가 [영희를 애인으로] 삼았다/간주했다.  
b. \*철수가 [영희 애인으로] 삼았다/간주했다.
- (55) a. 철수는 [영희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b. ?\*철수는 [영희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Hong, 1994: 3-5)

다섯째, 한국어(일본어)와 스페인어에서 목적어 명사구가 뒤섞기(scrambling)되는 경우, 격조사 ‘을/를’과 인칭전치사 ‘a’는 반드시 요구된다.

인칭전치사 ‘a’를 사용할 수 없다.

- (iii) a. \*Hay a muchos amigos.  
b. \*Juan tiene a muchos amigos.

이러한 점에서, tener 구문은 haber 존재구문과 마찬가지로처럼 특정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칭전치사 ‘a’를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직접목적어를 서술해주는 이차술어가 나타나게 되면, tener 구문은 haber 존재구문이 아닌 estar 장소술어구문으로 바뀌어져서, 목적어 명사구가 특정적 해석을 띠게 되어 인칭전치사 ‘a’가 나타날 수 있다.

- (iv) a. Tengo [a tu hermana como ayudante].  
b. Tiene [a los alumnos estudiando el problema].

이러한 사실은 인칭전치사 ‘a’는 [+animado, +específico]라는 두 가지 의미자질을 목적어 명사구에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v) a. He visto a un niño en la calle.      [+animado, +específico]  
b. He visto un niño en la calle.      [+animado, -específico]

12) 논평자는, (53)-(55)에서 이차술어를 갖는 많은 목적어가 ‘-를’ 뿐만 아니라 ‘-가(이)’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구문에서 ‘가/를’이 교체될 수 있다. 언어학 용어를 사용한다면, 스페인어나 영어의 경우, 비시제절을 가지는 내포절의 주어는 주절동사로부터 예외적 격표시(ECM)가 이루어지나, 한국어에서는 격표시가 내포절 자체에서 주격으로 허가될 수도 있고, 주절동사로부터 예외적격표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주격조사든지 목적격조사든지 간에, 이차술어를 가지는 목적어에 격조사가 탈락되면 이러한 문장은 어색하게 된다는 점이다.

- (56) a. 철수\*(를), 존이 [메리가 t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b. Sono hon-\*(o) John-ga [Mary-ga t katta to] omotteiru.  
 that book-Acc John-Nom Mary-Nom bought that thinks
- (57) \*(A) Carlos, Juan piensa [que lo quiere t María].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스페인어의 인칭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전치사 ‘a’는 한국어 목적격 조사 ‘을/를’과 여러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스페인어 ‘a’는 순수한 전치사가 아닌 격 표지자(Case marker)라고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스페인어의 인칭전치사 ‘a’가 격표지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직접목적어가 [+animado, +especifico]라는 의미자질을 만족하더라도 인칭전치사 ‘a’는 생략된다. 그 대신, 어순은 다음과 같이 고정된다: V + OD[+animado] + a OI.

- (58) a. Presenté **Miguel** a Antonia.  
 b. Denuncié **el ladrón** al guardia.  
 c. Recomiende Ud. **mi sobrino** al señor.

#### I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명백히 서로 다른 언어계통(인도유럽어족 vs.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하는 별개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통사적인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았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주어 생략할 수 있는 영주어 언어이며, SVO라는 고정된 어순을 지니지 않고 담화정보에 따라 구정보+신정보의 어순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어휘허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페인어의 인칭전치사 ‘a’와 한국어의 목적격조사 ‘을/를’ 역시 상당히 유사한 통사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 문법의 틀은 계통이 같은 영어와 스페인어가 한국어보다 더 공통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통사적으로 몇 가지 매개변인(parameter)

를 살펴보았을 때에, 스페인어는 영어보다 한국어와 공통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 십분 활용한다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화자들이 스페인어를 좀더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한국어는 영어보다 스페인어와 통사적 유사성이 더 많다.<sup>13)</sup>

---

13) 논평자들은 이러한 몇 가지 통사적 현상을 가지고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가깝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비교했을 경우,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몇 가지 통사적 유사성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서 많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과, 학생들로 하여금 스페인어 학습시 문법적 오류를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을 한국어와 비교하여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란 점에서, 스페인어를 우리말과 유사한 친근한 언어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본 논문은 교육적 관점 하에서 두 언어간의 통사적 유사성을 논의한 것이란 점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Brugé L. & G. Brugger(1996), "On the accusative *a* in Spanish", *Probus* 8, 1-51.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Mass, MIT Press.
- Contreras, H. (1983),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Madrid: Cátedra.
- Hong, Yong-Tcheol(1994), "Incorporation theory and the distribution of Case morphem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4:1, 1-43.
- Hualde J., Olarrea A. & A. Escobar(2003), *Introducción a la lingüística hispán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eggli & Safir(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and parametric theory", *The Null Subject Parameter*, Kluwer, 1-44.
- Kim, Dae-Bin(1993), *The Specificity/Non-specificity Distinction and Scrambling theory*, Seoul, Taehaksa.
- Kim, Un-Kyung(1993), "La preposición *a* ante el complemento directo", *Revista Iberoamericana*, 4, 139-178.
- King, Larry D. & Margarita Suñer(2003), *Gramática española: Análisis y práctica*, 2da. Edición, McGraw-Hill.
- Lee, Man-Ki(2004), "Structural Case and D-feature in Spanish and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4:1, 137-155.
- Lee, Wonbin & Sungeun Cho(2003), "Argument Scrambling and Object Shift",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3, 39-59.
- Rizzi, L.(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Foris.
- Shim, Sang-Wan(2003), "Comparative study on *pro*-drop: Pedagogical approach", *Revista Iberoamericana*, 14, 113-132.
- Solà, J.(1992), "Agreement and Subjects", Ph.D. Dissertation. UAB.
- Torrego, E.(1998), *The Dependencies of Objects*, Mass, MIT Press.
- \_\_\_\_\_ (1999), "El complemento directo preposicional",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 Zagona, K.(2002), *The Syntax of Span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bizarreta, M. L.(1994), "The Grammatical Representation of Topic and Focus". *Cuadernos de Lingüística del I.U. Ortega y Gasset* 2.

이만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E-mail: [mankilee@snu.ac.kr](mailto:mankilee@snu.ac.kr)

논문접수일: 200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2004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04년 12월 10일